

---

第12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2001年3月23日(金) 午後2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東部病院所管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東部病院所管業務報告 ... 2面

---

<14時 26分 開議>

○委員長代理 李政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李世琮 동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0일 개최되었던 금년도 동부병원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위원간담회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다시 보고 받는 회의인 만큼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상기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기능은 더 발전시키고 역기능이나 문제점은 해소 보완 개선하려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

고 합심 단결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한 의지가 집결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의 회의가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1. 東部病院所管業務報告

(14時 28分)

○委員長代理 李政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부병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李世琮 동부병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李世琮; 안녕하십니까? 시립동부병원장李世琮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병원 간부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院務課長 朴義善, 診療部長 徐近鎬, 看護課長 申姬子, 藥劑課長 高京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존경하옵는 보건사회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 받아서 저희 병원의 업무를 다시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병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아울러 병원장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모두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 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써 용서를 해 주시고, 또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병원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저희들 맡은 바 업무인 소외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 또한 적

자폭 감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병원 운영방향, 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0년 주요 업무실적, 병원신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보고를 약해 주시고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政恩; 네, 좋습니다.

업무현황은 유인물에 상세히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6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李世琮;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명에 의하여 6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東部病院 業務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히 저희 시립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병원의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

시고, 그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采委員, 질의하십시오.

○洪承采 委員; 원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院長 李世琮; 네, 감사합니다.

○洪承采 委員; 洪承采委員입니다.

우리 李世琮 院長님 이하 동부병원 간부 여러분께서 연이어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상당히 부담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부병원에 비단 국한되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동부병원 그리고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등 신축병원들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또 지금부터 계속되는 6월의 행정사무감사, 또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회일정에 맞추어 직영이라든지 위탁병원에 대한 현장의 문제를 미리 의논드리고자 하는 그런 오늘의 업무보고를 성격상으로 먼저 규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공통적인 의견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병원이 가지고 있는 누적체납진료비 등 어떻게든지 빨리 받아내어서 병원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노력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의료환경이 너무 급격스럽게 변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재정상황도 넉넉지 않아서 원장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체납진료비가 들어올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내용들이

착실하게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맨 먼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院長 李世琮;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각하께서 엇그제 신문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재정 과탄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대통령 말씀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어서 그 장관의 주도하에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부속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문제를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서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로 준비를 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院長 李世琮;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병원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딱하지요?

○院長 李世琮;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렇게 딱한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특정 어느 한 기관에 대고 그 말씀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사료는 됩니다.

다만 재정 확충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원성도 대단하고, 또한 일반병원들이 예를 들면 부당한 이중적 진료행위,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지속적인 항생제의 투입 등 지금 사회가 굉장히 곱아터지고 있는 그런

의약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혹시 동부병원에서는 없겠지만 이 전체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원장님께서서는 굉장한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내용이 업무보고 형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院長 李世琮;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지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의 예를 들면 복지시설과 연대진료, 또 특히 왕십리 2동에 있는 화성영아원 같은 경우를 두고 직접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엔 진료비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院長 李世琮; 그러나 그것은 진료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어떤 식으로 되지요? 왜냐 하면 거기서 병원을 찾아와서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가 아닌 이쪽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院長 李世琮;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날짜를 정해 놓고 찾아가는데 그 환자를 발굴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院長 李世琮; 거기에는 보통 생후 며칠서부터 생후 1·2년 사이의 아주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작년 초반기에도 폐렴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이 입원진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들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소아과 의사들이 나

가서 진료를 해 주고 아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처방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의료보호환자에 준해서 진료비를 청구하고 저희들이 약을 조제해서 또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런 식으로요?

○院長 李世琮;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치료를 해 주고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院長 李世琮; 의료보호환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늦더라도 나중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나중에 늦더라도, 좌우지간에 그런 면이 지금 주신 업무보고에서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고민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미리 짚고 넘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내년 5월에 병원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계시죠?

○院長 李世琮; 네.

○洪承采 委員; 그리고 올해 신규로 도입하시는 장비들이 몇 가지 장비들을 새로 구입하시고 또 대체장비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하실 때 옮겨주는 조건까지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院長 李世琮;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 장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는 장비들은 대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엔 이사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ay 기계 같은 것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지로 작년에 고장이 나서 신체검사에 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형장비를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꽤 많은 액수의 이동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비 이동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할 예정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신규장비가 들어오고 대체장비가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장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우선 동부병원 현재 이 병원에 와서 설치되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院長 李世琮; 연구해 보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몇 톤짜리 기계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것도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새로 옮기기 위한 준비의 단계에서 병원 개원준비를 위한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이사비용,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만 병원의 형태와 기능이 병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춰지는 병원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 李世琮;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이즈로 4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계상에는. 그러나 대수술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되고 소수술은 그것보다 작아도 됩니다. 오히려 똑같은 사이즈가 있을 경우에 대수술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급한 시설들은 의약과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작년에 타협을 하는 설계변경을 일부는 시켰습니다만, 아직 자질구레한 것들 중에서 고쳐야 될 사항들은 들어가서 서서히 고쳐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래서요, 원장님,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1년쯤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쯤 남았다고는 해도 벌써 내년 이맘때쯤이면 시험 가동단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을 전제해 두어야 되겠죠? 5월 개원을 위해서는.

○院長 李世琮; 5월 개원이 아니라 5월 완공이기 때문에 저희들 들어가는 것은 한 7·8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5월에 완공이 되고 나면 병원을 테스트하고 움직이게 되고 그런 체계로 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한 준비 팀이랄까, 사전에 스터디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준비팀 같은 것 구성에 대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院長 李世琮; 네,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해서 이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골조부분, 말 그대로 하드웨어만 딱 두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집 하나 이사하는 것도 엄청날 텐데 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옮겨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종도의 신공항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병원을 옮기는 문제는 행정적인 지원만 가지고 되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메디컬팀이 가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행정과 메디컬팀과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과 또 각종 하다 못해 식당이랄까, 복도층계의 청소문제랄까, 위생, 방역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가미가 되어서 일제 오픈과 또 오픈이 되고 나서 대시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 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야 될 텐데 지금까지 동부 병원이 가지고 있는 대시민 이미지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만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한다거나 또 그 토론의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들 해야 된다. 병원 자체를 레이아웃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院長 李世琮;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洪承采 委員;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나 앞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신축병원에 관한 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준비되고, 당장에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고 나시면 야, 그 말이 일리가 있다, 洪承采委員이 지적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면 바로 이렇게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院長 李世琮; 알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당장에 어, 이것 봐라. 예를 들면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컨센서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야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드리든지, 또 그런 것이 미리 준비되어서 위원회에 와야 내년도 예산에 뭔가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병원이 되면 서로 좀더 원만하고 성실하게 준비했던 모습들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비단 병원장님 중심의 행정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팀을 운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院長 李世琮;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업무보고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 또 계속 의료 때문에, 의료환경 변화가 너무 너무 걱정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업무과약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洪承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李順子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順子 委員; 李順子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페이지를 보면 인력이 나오죠?

그 중에 병원은 전공의가 많아야 되는데, 정원 11명인데 왜 이렇게 괄호를 해 났나요? 그런 데다 현원이 6명이면 지금 5명이나 부족하다는데 병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요?

○院長 李世琮; 지장은 좀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좀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23페이지를 보면 진료부문에, 2000년 업무실적에서 목표치를 목표보다 실적을 훨씬 많이 해서 의욕적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무슨 광고를 하더라도 컨셉을 근사하게 잡아야 그 컨셉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가 그 목표치에 따라갈 만큼 나올까 말까한데 원래 목표는 이렇게 작게 잡고 실적이 이렇게 컸다 라는 것은 참 일을 많이 했다 라는 얘기도 되지만 지금 이 실적을 따져보면 1년 365일로 쳐보면 1일 진료한 환자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페이지 인력에서 전공의가 훨씬 많이 모자랐죠? 그 모자란 이유는 뭘니까? 왜 이렇게 의사들이 부족했나요?

○院長 李世琮; 말씀 올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매년.....

○李順子 委員; 재작년이 몇 년도예요?

○院長 李世琮;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병원협회로부터 수련병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1999년도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때 인턴이 저희들이 9명 그 동안 모집을 했었는데 그 해에 9명에서 4명으로 삭감이 되었고, 전공의들은 저희들이 내과, 외과, 소아과 3개 과를 뽑고 있었는데 그 해에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소아과 1과만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2과를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과하고 외과를 뽑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병원협회 심사를 받으면서 열심

히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 인턴들은 저희들이 5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에서 인가를 받았고, 소아과 이외에 내과도 금년에는 전공의를 뽑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외과는 금년에도 뽑을 수 없도록, 기준에 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협회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전공의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심사를 받을 때에는 외과까지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順子 委員; 내과 등 17개 진료과목이 있는데 지금 전공의 6명 가지고 또 인턴 좀 뽑고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 병원 운영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院長 李世琮; 여기에 하나 빠졌습니다만, 빠져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전공의들 중에서도 각 과에 배속된 전공의 수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들이 이 외에 5명이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뽑은 인력이 있어서 현재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해서.

○李順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병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공의 밑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아파 두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부병원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전공의는 적은가 했었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못했네요, 2000년도에는?

○院長 李世琮; 그렇습니다.

○李順子 委員; 2001년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院長 李世琮;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李順子 委員; 그런데 의사 어느 협회가 그런다고요?

○院長 李世琮; 병원협회입니다.

○李順子 委員; 병원협회가 원장님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院長 李世琮; 아닙니다.

○李順子 委員; 그것은 아니에요?

○院長 李世琮; 재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인턴들은 상당히 많이 보건복지부방침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 전공의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똑같이 줄었던 것뿐이고.

또 기준이 조금 미달될 경우에도 99년도, 2000년도 공히 아주 가차없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건복지부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그때 의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전문의나 인턴 같은 것 어떻게 소화를 해요? 이렇게 동부병원에.....

○院長 李世琮;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턴들은 금년 1년 동안에 작년보다 한 100여 명이 증가한 3,30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졸업하는 졸업생 수가 약 3,100명밖에 안 되어서 약 200명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저희병원은 그나마 인턴 5명을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고, 지방에 있는 중

합병원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은 5명 중에 1명도 못 뽑은 그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저는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었나, 의사가 부족해서. 또 환자가 돌아가는 일은 없었나 이런 우려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에서 목표치를 7만 6,712명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실적이 약 10만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자, 금년도 목표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나간 것 보고하는 사안이거든요. 2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에서 진료를 7만 6,0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9만 8,000 나왔어요. 2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일 환산해 보면 병원이라는 데가 1일 300명, 그것도 17개 과를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1일 300명밖에 진료할 수 없었다, 실적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을 목표를 더 적게 잡아놨으니까 일을 우리는 조금 안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나. 진료를 조금 덜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료 못 찾으셨어요? 자료 23페이지.

○院長 李世琮; 네,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좀 미달해서 이렇게 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달은 적게 해 놓고 목표는 많이 달성을 해서 참 목표를 오버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일을 많이 했다고 보지만 왜 목표 자체를 이렇게 안이하게 작게 잡아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 한 2만 2,000명을 이렇게 진료를 많이 해서 목표에 따른 실적은 참 칭찬할 만하나 목표를 왜 이렇게 안이하게 적게 잡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 목표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院長 李世琮;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표는 3년 동안의 진료 실적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지요?

○院長 李世琮; 네.

○李順子 委員; 그러면 2001년도 진료목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지요, 실적이 이만큼 나왔으니깐 좀 많겠지요, 높게 책정이 되겠지요?

○院長 李世琮; 네.

○李順子 委員; 한 마디로 말해서 동부병원에 설왕설래 얘기를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17개 과목을 둔 병원으로서는 너무나 진료실적도 적고 목표환자수는 너무 적지 않았나 그런 우려에서 한 말씀드리고요.

2001년도 목표가 얼마라는 것이 원장님 정도는 지금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院長 李世琮; 죄송합니다.

○李順子 委員; 그러면 진료부장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진료부장님 2001년도 목표는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診療部長 徐近鎬; 그것은 통계를 잡아서.....

○李順子 委員; 그것은 통계가 아니지요, 지금 연필로 금방 계산해도 하루에 300명도 못 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이 3월말입니다. 3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2001년도 진료목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운영상이라든가 진료부장 업무태만이.....

○診療部長 徐近鎬; 8만 4,000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順子 委員; 그런 것을 왜 몰라. 최소한도 총 예산 얼마, 총 진료숫자 목표의 얼마, 이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지요, 부장님 정도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원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院長 李世琮;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李順子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榮元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榮元 委員; 姜榮元委員입니다.

사실 2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다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동부병원을 부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院長 李世琮; 네, 알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어떤 이유였나요?

○院長 李世琮; 병원운영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경영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써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 바로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중에 2가지는 빠뜨렸는데 그 중에 하나씩 짚으면서 내려갈게요.

지금 방금 우리 李順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서는 전 달에 내려보낸 것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애초에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안이하게

무사안일주의로 빠져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쓰던 그대로 보냈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참 잘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서 지적될 사항을 저희는 지금 여기서 서로 좋은 얘기하려면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발전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李順子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주요업무실적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목표치가 여기에 안 나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실적이 9만 8,000명을 2000년도에 진료를 해서 하루에 300명 정도이면 17개 진료과에서는 한 과에 겨우 10명 정도 진료 보는 정도로 끝났어요, 실적이. 그렇죠?

그런데 목표는 잡긴 잡았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표도 안 나왔기 때문에 李順子委員님이나 저나 참 의아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었는데 그 목표는 지금 진료부장님이 말씀하셔서 8만 4,00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적이 9만 8,000명의 수가 작았으면 목표설정 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영원히 구조적인 병원의 어떤 문제를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院長 李世琮; 네.

○診療部長 徐近鎬; 그 목표는 아주 저하고 똑같은 李順子委員님의 맥이 연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낮게만 잡는다고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병원의 현상은 미래의 문제를 놓고 실적이나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현재의 장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있었고 현재 어떤 내부적인 변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를 전부 다

활용을 해 보니까 올해는 이러한 의료보험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된다고든지, 또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과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작년 3년치에 기본적인 실적 놓고 그것을 나누어서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을 지향하는 자세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院長 李世琮; 네, 알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 문제를 일단 첫 번째 고쳐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 그게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끄집어 나가고요.

사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저희가 동부병원에 요구하고 싶었고 다시 한 번 행정보고를 받아야 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향후 2002년도 5월에 병원이 신축된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가에 대한 준비점검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院長 李世琮; 네.

○姜榮元 委員;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병원장님이 다시 행정보고를 받을 때 빠뜨렸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환자에 대한 진료자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병원 내부적인 단계의 문제를 더 중요시했었어요.

사실 병원장님께서서는 새로 오셔서 굉장히 병원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 같이 단합이 안 되고 따라 주지 않았을 때 화합이 되었겠습니까?

병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중과부적이 되었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거기서 진료부장님이나 여러 책임자급 되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부병원은 위탁체제로 가야지 이게 수익성이나 공익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업무보고서를 딱 보고 나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병원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문제점은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그런 이러한 변화될 수 있는 자세도 가지고 계셨고 실력도 가지고 계셨는데 왜 과거의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업무보고를 했는가, 아예 그때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그 병원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재차 받을 필요성이 없었고 더 열심히 해서 수익성을 더 올리는 길로 가라는 그런 덕담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움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자세 전환에 있어서는 사실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사님들이 근무지를 근무시간에도 이탈하고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죠?

○院長 李世琮;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렇죠. 그런데 그 자세의 전환도 변 각성시켜 주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불러드렸고요. 그런데 일단은 외형적인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흡족이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는 자세로서 단합해서 진짜 열심히만 해 나가신다면 이것은 작년 60억 적자에서 올해 80억 적자 내겠다고 하는 그 체제가 변환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14페이지 체납진료비 극소화 노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제가 또 한번 흡족했습니다.

1월에 2억 9,000에서 3억 1,000으로 늘고, 2월에 3억 9,000에서 4억 1,000으로 늘어서 이런 추세로 가면 80억 적자 날 것이 60억 정도로 작년수준으로 조정된다는 말씀이셨지요?

○院長 李世琮; 그렇습니다.

○姜榮元 委員;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받고 싶어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의 방향,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 등등 그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평가원 심사 등등해서 5번 진료비 체납개인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뽑아놓지 않으면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院長 李世琮; 옳으신 말씀입니다.

○姜榮元 委員; 이런 방향제시를 저희는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도 제대로 나오고, 오늘은 제가 동부병원에 대해서 다른 문제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부병원이 이러한 자세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제가 3월 15일 시정질문에서 동부병원은 임직원들 전체가 새로운 자세의 변환이 생기지 않고 구조적인 혁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다면 곧바로 위탁체제로 가는 방향을 저희 보사위원회부터 시장하고 같이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가, 그것은 아시죠?

○院長 李世琮; 알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런 방향으로 잡았었는데 그 후 保健福祉局長님하고 市長님하고 저희가 말씀했을 때 일단은 병원이 신축될 때까지 그들이 일하는 근무자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단합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작년에 60억 적자가 났는데 우리는 무료환자를 진료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80억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자세변화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사실 무료환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무료환자로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무료환자는 수입이 없지요?

○院長 李世琮; 무료환자도.....

○姜榮元 委員; 물론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요. 의료재정에서 주는 그런 것 빼놓고 일단 내는 돈이 없습니다. 단순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수입은 병원 입장에서 제로이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치핵수술 받았다 말입니다. 치핵수술을 받았는데 그 치료비가 50만원이었는데 돈 치료비 낸 것은 제로예요.

그러면 그 무료환자가 수치료 따지면 50만원의 병원에 수익을 준 것이지요? 바로 그것예요. 그것을 수치료 따져놓으면 그게 공익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성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수입성을 계산해서 그 총계가 그게 우리 시민이 낸 기본적인 재정의 적자가 나면 그 병원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세변환을 지금 병원장님께서 추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업무보고서에서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뭐가 부족된 것이 있느냐 하면 일단 3페이지에 재정규모를 놓고 보면 세입하고 세출이 있지요?

○院長 李世琮; 네.

○姜榮元 委員; 이 밑에는 앞으로 참조할 때 그것을 참조해주세요.

재정자립도 문제에 첫째 수입과 비용의 계정이 있어야 돼요. 수입 얼마고 비용 얼마고 해서 나중에 총 적자가 얼마, 밑에는 재정자립도가 있지요. 그게 나와 주어야지 기본적인 그 업무보고의 어떤 재정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현재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院長 李世琮; 네.

○姜榮元 委員;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경영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이 점도 제가 오늘 만약에 동부병원의 어떤 임직원들의 자세 변환이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익성의 문제를 제대로 제고 못한다면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려고 했던 상태에서 이 문제도 저한테 굉장히 공감적인 마음을 열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의문되는 것이 119구급대와 연계하여 응급환자 확대 유치라고 되어 있지요, 12페이지에요.

그런데 현황은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지금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차에 태우면 어디로 일단 모셔 가는지 아십니까? 시립병원에 오는 확률이 몇 %인지 아세요?

○院長 李世琮; 극히 적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렇죠? 5%가 안돼요. 그만큼 시립병원을 응급환자들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병원 측에서 짜야 할 것입니다.

○院長 李世琮;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시고, 17페이지에서요, 우리 간호사분들이 환자에 대한 어떤 교육문제, 서비스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院長 李世琮; 매달 1회 이상씩 간호과 자체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렇습니까?

○院長 李世琮; 네.

○姜榮元 委員;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일단 말씀 안 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력하는 자세가 일단 보여졌을 때 더 이상 다그치는 것도 좋지 않고, 일단은 현재 동부병원의 조금의 문제는 간호사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스마일운동부터 퍼면서 짜증나더라도 조금 참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간호과장님, 참조해 주세요.

○看護課長 申姬子; 네.

○姜榮元 委員; 그것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아직도 그에 대한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그 방법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서 또 하나 보라매병원하교의 전산체계를 연결하는 데 대한 노력, 이것이 지금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서요.

전산체계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다

시 해 주십시오.

○院長 李世琮; 알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리고 장묘제도에서 지금 행려환자들이 114명에서 작년에.....

○院長 李世琮; 24페이지입니다.

○姜榮元 委員; 69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나요?

○院長 李世琮; 물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진료해서 사망자를 줄였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느 때에는 또 특히 중환자들이 많이 와서 사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姜榮元 委員; 어떤 해에는요?

○院長 李世琮;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중환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姜榮元 委員; 어떤 병원의 특수한 비법이라든가 기법에 의해서는 아니었고?

○院長 李世琮; 그렇습니다.

○姜榮元 委員; 외부적인 현황의 문제네요?

○院長 李世琮; 그런 현황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수술실적 말씀했는데, 산부인과 16명,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몇 분이시죠?

○院長 李世琮; 두 사람이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 1년에 1명이 채 안 되네. 그렇죠? 두명이면.

그런데 전부 다 자연분만하나요?

○院長 李世琮; 먼것번에도 제가 姜委員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병원은 임시로 들어와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분만실을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입니다. 병원협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것이지 실지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감염이 되어서 사고라도 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건물로 이사한 이후에 정식으로 분만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姜榮元 委員; 그러면요, 새로운 병원에 옮긴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앞으로 동부병원에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그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재고해 주시면서, 그리고 신축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병원장님은 점검하시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院長 李世琮;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姜榮元 委員; 이상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전직원이 단결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 새로운 방안을 노력해 주시면 아마 동부병원도 흑자재정으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한 질타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부장님, 원장님 모시고 같이 단합해서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政恩; 姜榮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병원 소관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부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금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휴회한 후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43分 散會)

---

○出席委員

李喆鎬 高明坤 李政恩 姜榮元  
金種求 閔鍊植 李英順 崔鍾午  
洪承采 李順子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東部病院

院長 李世琮

診療部長 徐近鎬

看護課長 申姬子